활살

5월호

1958년(90)

3 -MAY 26
Copy ______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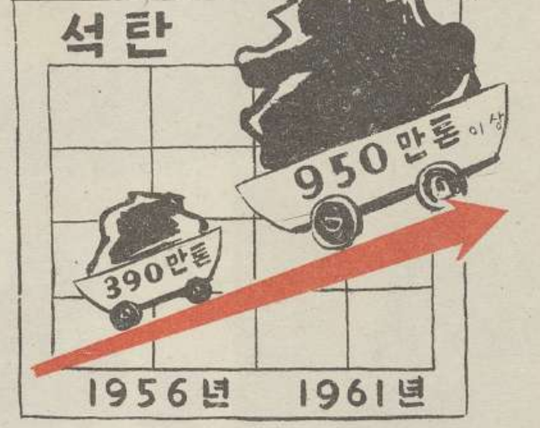
홍 종호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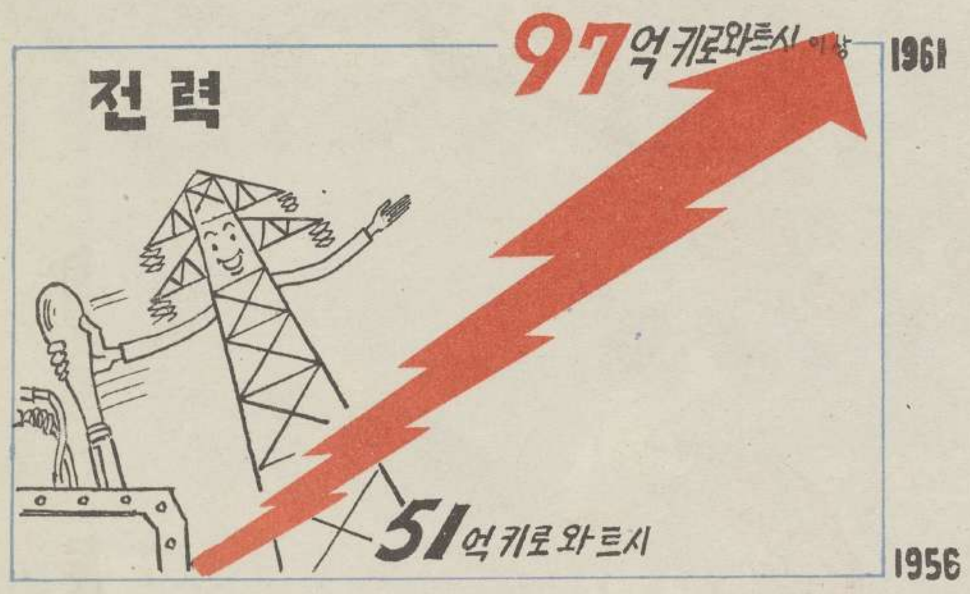
김홍도—나도 많은 선경을 그렸지만 이렇게
훌륭한 그림은 처음이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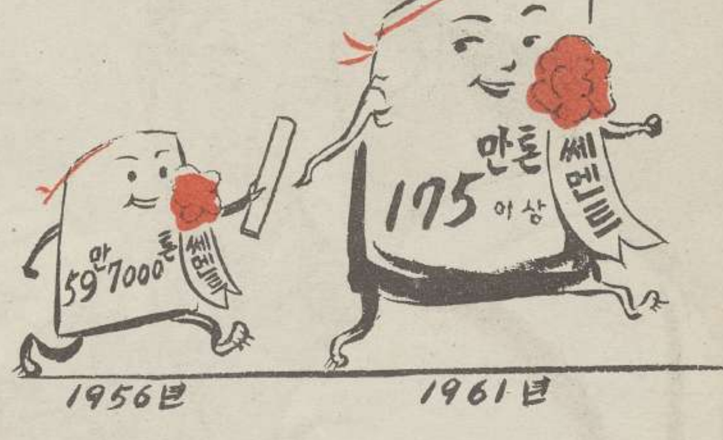
로동자—우리 인민들이 그린 지상 락원입니다
여기서는 의식주 걱정이 없습니다

제1차 5개년 계획의 위대한 전망

백 인균 최 영근 송 용남 리 영춘 조 명식 원 광수 그림







틀림 없는 계책

유 항 림

리 봉섭이가 《민의원》 선거에 이 선거구에서 립후보로 출마하게 된 데는 물론 리유가 없지 않다. 여기가 자기의 세력권내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우선 경찰서장만 하드래도 표면적인 일에서나 사바사바판에서나 그와는 늘 한속내여서 이번에도 경찰이 그의 수족 같이 움직여 주리란 것은 충분히 믿을만 했다. 게다가 또 이 일대에서 지금 한창 이름난 어깨패의 두목인 장 명준이가 오늘의 지반을 닦는 데는 정치브로카인 그의 힘도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만큼 이 선거에서도 장 명준 일당이 입안의 혀 같이 놀아 주리란 것도 의심치 않았다.

남조선에서 경찰과 테로의 힘으로도 못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유권자들이 제아무리 리 봉섭이는 친일파다, 협잡'군이다, 악질 정상배다, 매국노다 하고 침을 배앝는다 해도 그는 자신이 있었다. 《자유당》의 공천까지 받고 보니 더우기나 념려할 바가 없다고 생각했다.

선거가 가까와 오던 어느날 저녁에 그는 자기집 으슥한 안'방에 경찰 서장과 명준이와 셋이서 술'상을 마주하고 솥발 같이 앉아서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그는 잔을 서장에게 권하면서 말을 계속했다.

《그러기에 나는 남들 같이 뭐니 뭐니하고 선거 운동에 마구 돈을 뿌리지는 않으렵니다. 외곬으루 중점적으루 돈을 쓰렵니다. 서장님, 그만하면 아시겠지요?》

《예 념려 마십쇼. 선거함은 진짜 것과 꼭 같은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놨구, 선거표는 위조를 하든가 했다가는 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인쇄하는 데서 필요한 수효만큼은 비밀히 입수하도록 수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서장님만 믿는다고 하는 것 아니요. 좌우간 전번 원면 사건 때와 같이 그런 솜씨를 발휘해 달란 말요.》

《그건 문제 없습니다. 방금도 말씀 드린 바지만 선거날 저녁에 명준군네 패거리 중에서 누가 하나 무기 강도 사건을 일으켜 준다면 그걸 기회루 대대적인 비상 경계망을 늘여 놓고 일대 검색을 하면서 그때 좋도록 하지요.》

《역시 전문가가 다르다니까?!》

봉섭이는 만족한듯이 그의 계략에 새삼스레 놀라는 것이였다. 경찰은 범죄를 방지하는 데 전문인 것이 아니라, 범죄를 꾸미는 일에 전문인 것은 확실히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서장은 장한듯이 설명을 계속한다.

《선거 당일에 선거함을 들고 다니다가는 남의 눈에 띄일는지도 모르겠으니까, 선거장 바루 옆에 미리 준비한 선거함을 감춰둘 장소들까지 봐 두었습니다.》

《그러기에 전문가가 다르다고 하지 않어! 그런데 명준이, 그렇다고 임자는 무기 강도 사건만 내 놓고는 나 할 일은 다했거니 생각해서는 안돼!》

《네. 날 어떻게 보고 하시는 말씀이요? 서장님의 솜씨도 솜씨지만, 그래두 장 명준이 하면 얼마간 이름이 팔린 사낸데, 이런 때 솜씨를 보이지 않는다면 언제 뵈겠수.》

《좌우간, 난 이런 일엔 언제나 린색한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때는 서장이나 자네에게도 그게 헛된 일은 아닐테니까……에 또, 일곱 개 투표구 중에서 둘은 이미 야당계를 섞지 않고 우리 사람들만으로 선거 위원을 짜 놨으니까 그건 문제 없고, 남어지 다섯이 문젠데, 둘만 더 바꿔치우면 당선은 틀림 없다고는 하지만, 경찰에선 그래도 역시 여러가지로 눈을 꺼려야 할 경우도 없지 않으니까 말이네. 자네는 자네대로 손을 써야 한단 말이네. 난 무슨 일이든지 계책을 빠듯이 세우는 결론 만족하는 법이 없어. 틀림 없는 성공을 바라려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법이거든—》

선거날에는 그들이 계획했던 일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밤이 되자, 권총 강도 사건이 일어났고 뒤이어 어마어마한 초비상 경계망이 쳐지고 대대적인 검색과 그에 뒤따르는 범인 추격이란 일대 활극이 일어났다. 얼마 후에는 경찰서장이 밀사를 보내서 《셋입니다》하고 통지해 왔다. 장 명준이도 찾아 오더니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싱글싱글 웃기만 하다가 틈을 타서 귀'속 말로 《두 개 했어요》하고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자기네 패들만으로 짜 놓은 선거 위원들끼리 선거표를 바꿔치울 두 투표구까지 합치면, 경찰에서 셋 명준네 패가 둘— 결국 일곱개 투표구 전부를 바꿔치운 셈이다.

그런데 개표 결과에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당선이 틀림 없어 보이던 리 봉섭이는 락선이였다.

《죽일 놈들 같으니……세상엔 한놈두 믿을 놈이 없구나! 서장놈이나 명준이 놈까지 나를 속일 줄은 몰랐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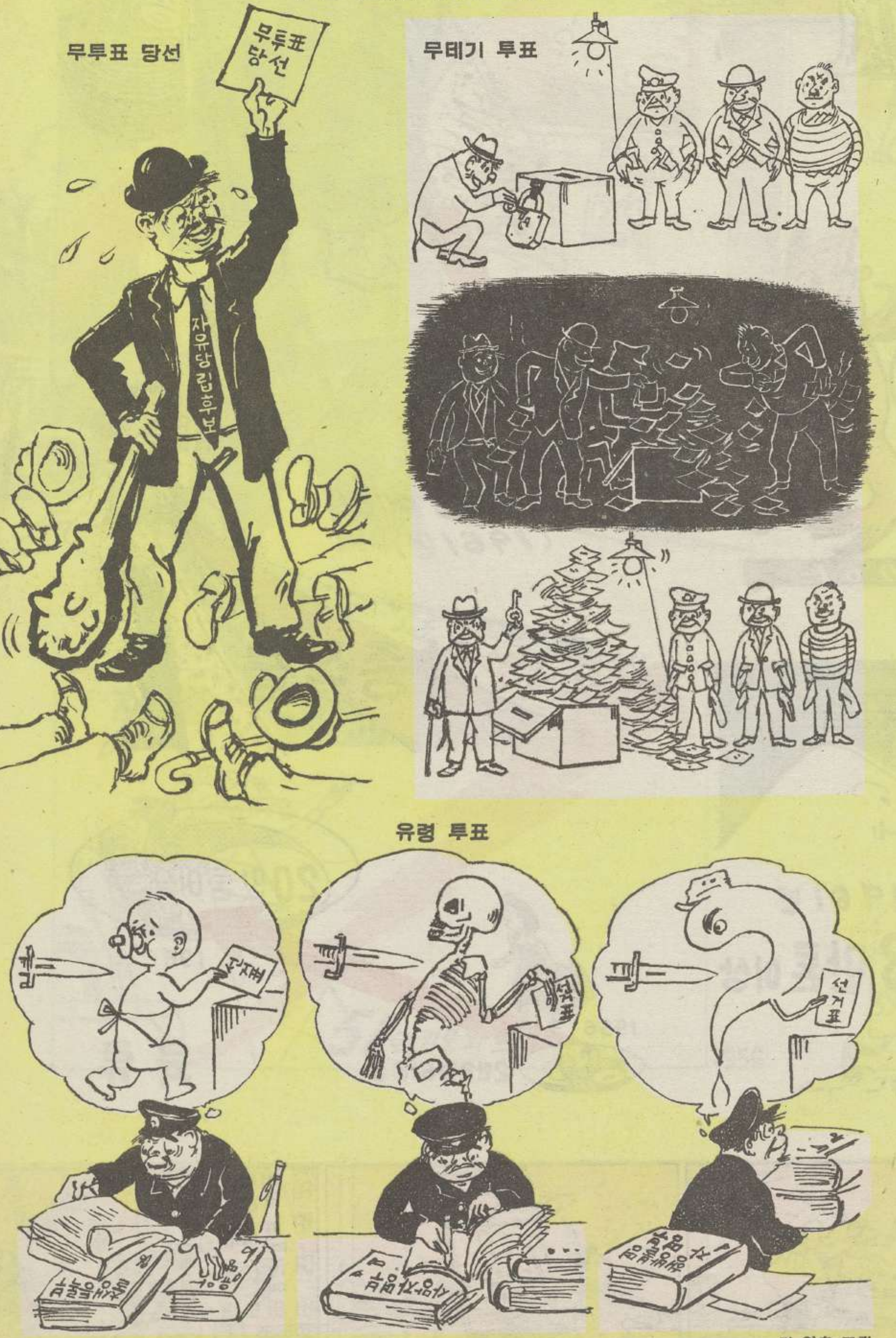
그러나 그건 리 봉섭이가 약간 오해한 것이였다. 사실은 조금 다르게 진행 되었다.

어느 투표구에서의 일이다. 밤 여덟시 쯤 해서였다. 종일토록 한산하던 선거장에 웬 일인지 갑자기 십 여명의 유권자가 한꺼번에 와 다았다. 그런데 그들 중에 곤드레만드레 취한 사람이 있어서 유권자 명단과 대조하던 야당계 선거 위원에게 공연한 시비를 걸더니 끝내 드잡이까지 되였다. 그러자 차례를 기다리는척 하던 어깨패들이 싸움을 말린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둘러싸고 와자 지꺼렸다. 그러는 사이에 선거장 뒤'방에 준비해 두었던 가짜 선거함이 선거장으로 나오고 진짜는 뒤'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얼마 후에는 그 부근 어디선가 권총 강도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 오더니, 다시 조금 지나서는 여기 저기서 호각 소리가 가까와 오던 끝에 경관들이 선거장으로 달려 들었다. 강도가 분명히 여기 어디에 숨었다는 것이였다. 이러는 북새통에 선거함은 또 한번 바뀌여서 각기 본시의 자리로 돌아 가게 되였다. 이렇게 선거함이 두번 바뀌여서 제자리로 되돌아 간 투표구가 다른 데서도 또 하나 있었다.

그러니까 리 봉섭이 선거함을 바꿔치운 것은 일곱이지만 결국에 바뀐 것은 셋 뿐이였다. 일곱 중에 셋만 바꿨으니 락선은 당연한 일이다.

무법 천지 무법 선거



리 영춘 그림

야만들의 소년 밀장

조 명식 그림

거리의 야수들

류 계 환

바지'가랭이와 팔소매로 찬바람이 스며들어 김 춘일 소년은 눈을 떴다. 어느 때나 되였을까? 그는 가마니를 깐 토관 속에서 기여 나왔다. 사위가 고요하다. 밤이 깊은 모양이다. 피곤에 못이겨 끼니를 굶은채 잠을 자든 소년은 몹시 추웠고 또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행길로 나섰다. 그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미군 부대가 있다. 부대 담벽 밖에 미군들이 먹다 남은 음식물들이 버려지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김 춘일은 열 세살 나는 구두 닦기 소년이다. 그에게도 고향은 있다. 경상 남도 마산이다. 그러나 고향이 있어 무엇하랴, 그를 돌봐 줄 육친이 없는데야! 어머니는 그가 열살 때 세상을 떠났고 형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경찰이 와서 군대로 끌고 갔다. 형에게서는 그후 소식이 없다. 말하자면 소년은 고아가 된 셈이다.

그는 서울로 올라 와서 구두 닦기를 배웠고, 손님을 찾아 여기 저기 떠도는 어린 방랑객이 되여 이곳 부평에까지 왔던 것이다.

김 춘일 소년이 부대 근처에 이르렀을 때다. 갑자기 소년은 뒤'덜미를 잡히여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슬리키 보이!》(요 도적놈아!)

미군 보초병의 말이다. 미군이 남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나 소년은 물론 알리가 없었다.

그는 장교 관사로 끌려 갔다. 거기서는 두명의 미군 장교와 한 명의 특무상사가 위스키를 마시면서 도박을 하고 있었다.

부대장 토마스 제임스 소좌는 손에 들고 있던 트럼프쪽을 책상 우에 내려 놓고 말 없이 소년을 노려 보았다. 소년은 제임스의 독기에 찬 눈매에서 전률을 느꼈다. 제임스의 눈에는 무고한 희생자에게 해를 가하려는 독사의 요기가 서리여 있었다.

소좌는 옆에 서 있는 마빈 켐프 대위에게 눈짓을 했다. 이번에는 켐프 대위가 옆에 있는 로버트 웨이던솔 상사에게 턱을 저었다. 이렇게 해서 이날밤 즉 1958년 2월 25일 밤에 서울 교외 부평에 있는 미 제8군 항공기 정비창 장교 관사에서는 무고한 구두 닦기 조선 소년 김 춘일에 대한 희대의 엽기적 린치 사건이 시작되였다.

미국 농장주들이 흑인 노예를 박해하듯이 웨이던솔은 처음에 몽둥이와 말채찍으로 김 춘일을 공격하였다. 채찍질이 가해질 때마다 소년은 깡충깡충 뛰어 올랐고 또 비명을 올렸다. 그때마다 장교들의 입에서는 웃음이 터졌고 상사의 표정은 더욱 험악해졌다.

소년의 전신은 부프러 오르고 시퍼렇게 멍이 들고 또 입에서는 피가 흐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고문은 오래 가지 못하고 중단되였다. 몽둥이가 두 동강이가 나고 채찍이 세 쪼각이 났기 때문이다. 그러자 대위가 책상 우에 있던 파도를 집어 들고 소년의 옆으로 다가 섰다. 공포에 떨면서 두 손을 내젓고 뒤'걸음치는 소년에게 다가 서더니 처음에는 소년의 팔을, 다음에는 소년의 허벅다리를 칼로 찔렀다. 소년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의 왼팔과 다리에서는 선지피가 흘러 내렸다. 그러나 피를 보자 아메리카 장교들의 야수적 본능은 더 잔인하게, 머리를 쳐들었다. 켐프 대위는 책상 서랍에서 뻬라야 (집게 같은 것)을 꺼내서 소년의 눈섭을 뽑았다. 소년은 대위의 마수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다. 그러자 켐프는 소년을 타고 앉아 이번에는 머리카락을 뽑기 시작하였다. 한편 특무상사는 리발기를 들고 와서 소년의 머리를 이곳 저곳 흉칙하게 깎아냈고 또 눈섭도 밀었다. 집게에 머리카락이 뽑힐 때마다 소년의 입에서는 비명이 올랐으며 소좌의 입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김 춘일 소년에 대한 미국 장교들의 이처럼 악랄한 야수적 만행은 아침까지 계속되였다.

아침에 그들은 소년을 위병소로 끌어냈다. 그곳에는 비행기 부속품들이 들어 있던 빈 상자가 있었다.

켐프 대위는 절반 실신한 김 춘일 소년에게 상자 속에 들어 가라고 눈짓을 하였다. 소년은 그 자리에 주저 앉았다. 그러자 웨이던솔 상사가 콜탈이 들어 있는 통을 가져다 소년의 머리에 퍼부었다. 그리고는 그를 상자 속에 밀어 넣고 뚜껑을 덮고 못을 쳤다. 상자는 헤리콥타에 실려 의정부로 운반되였다. 그들은 조선 소년에 대한 지난밤의 천인공노할 범죄를 엄폐하기 위하여 소년을 의정부 교외에 내다가 유기하려던 것이다.

그러나 사태는 그들이 기도하였던 것과는 정 반대로 되였다. 김 춘일 소년은 의정부 비행장에서 우연히 헤리콥타 옆을 지나가던 한 조선인 근무원에 의하여 발견되여 구사일생으로 유기 직전에 구출되였으며 양키 장교 집단이 조직한 이 희대의 린치 사건의 진상은 소년의 입을 통하여 백일하에 폭로되였다.

김 춘일 소년에 대한 린치 사건은 남조선에서 『일대 선풍과 같은 항의를 이르켰다.』

그러나 이 만행의 조직자들은 오늘까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더 네 활개를 치고 남조선을 쏘다니면서 악행을 계속하고 있다.

살인귀들의 만행

원 광수 그림

신 흥 순

삼천리 강토에 꽃피는 계절은 왔건만 남녘땅 동포들의 가슴 속에는 서리찬 가을 바람이 우벼들고 있다.

절량이 된 농민들은 밭갈이 시절도 아랑곳 없이 풀뿌리, 나무 껍질로 련명하다 못해 마츰내 농토를 버리고 남부 녀대하여 류랑의 길을 떠나고 만다.

경상도에서도 수십만, 강원도에서도 수십만—부황'증에 누런 얼굴들이 도시로 촌락으로 방황하고 있다.

눈물의 도시 서울은 세궁민과 걸인 떼기로 유명해진 곳이지만 요즘은 또 수십만의 절량 농민들까지 모여들어 일층 살풍경을 이루고 있다.

정거장 대합실에서 신음하는 소리, 시장 모퉁이에서 구걸하는 소리, 다리 밑에서 배고파 우는 소리—참아 눈으로 볼 수 없는 참혹한 이 정경이 오늘 서울의 모습이다.

얼마 전에 남대문 시장 옆에서 식료품 상점을 경영하고 있는 김 모는 아침 일찌기 가게문을 열자 문앞에서 세 사람의 시체를 발견하였다.

자세히 보니 어린 것은 이미 절명이 되였고, 령감과 마누라는 가느다란 숨을 모으고 있었다.

상점 주인은 미음을 쑤어 응급 구호를 하는 한편 서울 시청에 전화로 알렸다.

그러나 두 시간이 지나도 세 시간이 넘어도 깜깜 소식이다.

그러는 동안 령감과 마누라는 아주 눈을 감고 말았다.

상점 주인은 부랴부랴 시청 사회과로 달려 가서 그 사연을 이야기하고 당장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회 과장은 아래'입술을 삐죽이 내밀고 성가신 표정을 하더니

《젠장 그 죽은게 뭘 해 먹던 사람 같습디까?》

하고 묻는다.

《예 요즘 농촌에서 절량 농민들이 몰려 들었으니까 이것두 농사'군인 것 같습니다. 그 채림채림이》

《오 그래요? 네 그건 말요, 우리 사회과에서 처리할 사무가 아니구 절량 농민에 대한건 인제부터 저 산업국 농림과에서 하기루 됐으니까 거기 가서 문의하십쇼》

상점 주인은 농림과로 찾아 갔다. 과장인듯 싶은 뚱그런 의자에 앉아 있는 자에게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고 곧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다.

《허허허 잘못 알구 왔구먼! 행려 사망자에 대한 취급은 사회과에서 합니다. 자세히 가서 알아 보시우.》

《아니 절량 농민이 굶어 죽은건 인제부터는 이 농림과에서 취급허기루 됐다던데요?》

《뭐라구? 절량 농민에 대한거니까 우리더러 처림허라니 말이 되나? 우린 그런건 상관할 것 없으며 사회 과장 보구 처리해 달래우.》

하고 의자를 빙그르 돌려 외면을 한다.

《여보시우. 관청에서 처리할 일을 가지구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도대체 어떡허는 셈판이요?》

《관청안에 와서 왜 이리 큰 소리야? 담당 사무 맡은 데 가서 말하라는데》

상점 주인은 허는 수 없이 다시 사회 과장에게로 왔다.

《하아 거기서 처리허기루 됐다니까 그래! 내 전화루 얘기 해 줄테니 가만 있소.》

그는 수화기를 잡는다. 전화통에 매달려 한참 옥신각신 하더니 농림과장이 달려 왔다.

《아니 거지건 절량 농민이건 거리에서 사망된거야 행려 사망자지 어째서 우리 농림과 소관사란 말인가?》

《아니 절량 농민두 한 두 건이라야 말이지, 날의 날마다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걸 죄다 우리가 맡아 하다간 우리 사회과에다가 장의사 간판을 붙여야 할 판일세 그래, 보건 사회부 장관님한테 직접 문의해 봤더니 거기서두 말이 절량 농민은 관계 말라는 거야.》

《상부에서 그렇게 말을 해?》

《아 그럼, 우리 사회과야 걸인이다, 전쟁 고아다, 페병 환자, 문둥병 환자다 할 것 없이 서울 바닥에 널려 있는게 그건데 게다가 또 갑자기 들여 밀린 절량 농민까지 처리할 힘이 있나 말이야》

《좋네 나두 중앙청에 들어 볼테니까》

하고 휘익 나가버린다.

《아니 그럼 난 어떡허란 말이요? 문앞에다 시체를 자그만치 셋이나 두구 가게문을 닫치란 말이요?》

상점 주인은 하도 딱한듯이 과장에게 다가섰다.

《에 상부허구 의론해서 분담 사무가 확연해지는 대로 곧 처리하도록 할테니까 가 계십시요!》

상점 주인은 허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 와서 이때나 저때나 하고 기다렸다.

소위 괴뢰 정부 중앙청 안에서도 《보건 사회부 장관》과 《농림부 장관》 사이에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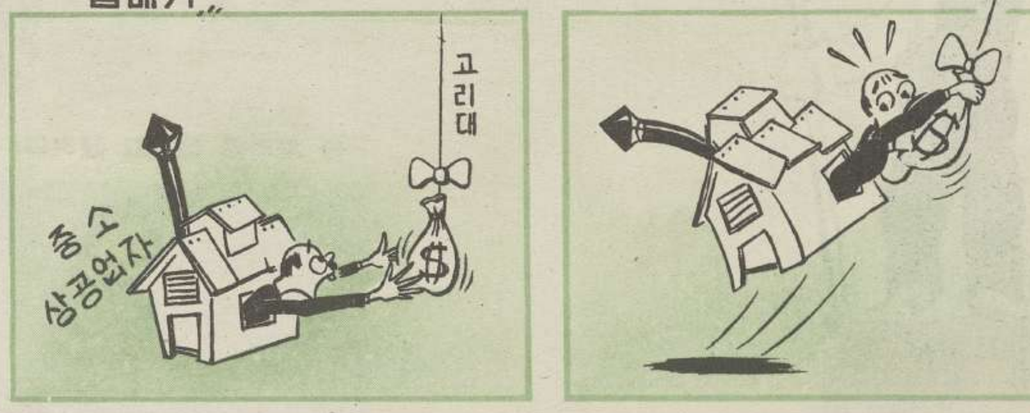
《네 담당이지 내 책임이냐?》 하고 밀고 댕기고 하는 통에 사흘이 지나도 불상하게 운명한 그 시체는 김 모의 집 문앞에 거적을 덮은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홍 종호 그림

류행어 만화사전

"백주의 테로는 테로가 아니다"

"곱배기"



"인간적으로 해결하자"

"거미줄 법망"

백 인균
최 영근 그림

5.1절 만세! 전 세계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리 영춘 그림

의로운 벗들

눈 보라를 헤치고 달려와…

꽃보라에 싸여서 돌아 간다

백 인균 그림

미치광이의 도발

송 웅남 그림

건설에 발맞추어

최 영근 그림

더는 참을 수 없다

송 용남 그림

보리' 고개 (남조선)

박 승히 그림

있는 솜씨 다해서

백 인균 그림

참담한 력사

김 현 석

세아토 (동남 아세아 동맹)의 참담한 력사여!

간단히 력사를 더듬어 보자.

출생부터 인공 수술에 의하였다.

금방 동남 아세아 지구로 《공산 대군의 침습》이라고 떠들썩 하면서 겨우 긁어 모았다는 것이 두 세 나라 청직이들 뿐이였다.

《공산 대군의 침습》… 과연 어디서 진군을 개시하여 어디로 쳐들어 간다는 것인지. '인도 사람도, 인도네시아 사람도, 비르마 사람도, 동남 아세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미 낡아 빠진 덜레스식 허풍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 동남 아세아 지역의 《방위》를 위한다는 이 군사 동맹에 겨우 타이, 파키스탄, 비률빈을 끌어 들였을 뿐, 동남 아세아 지구 절대 다수의 령토와 인구를 차지하는 인도, 인도네시아, 비르마 등 나라들로부터는 비웃음만 샀다.

이처럼 너무나도 한산한 동맹 구성에 아세아 지구 아닌 구라파 지구의 나라들까지 원조 동원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모체를 위협한 난산을 치루었다 하드래도 그래도 이 기형아가 자라기는 자라리라 믿었건만, 성장이 여의치 못한 것은 물론, 이 아세아의 기형아는 자주 앓기만 하였다.

있지도 않은 《공산 대군의 침습》에 대비한다고 거액의 군사비 지출이였으니 그렇지 않아도 허약한 타이 등 나라들의 병세, 자꾸만 도지게 된 것은 필연지 귀결이였다. 타이 등 나라들에서는 세아토로부터 탈퇴해야만 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갔가.

세아토의 산파, 드디어 분노하다.

타이만 근해에서 해군 대련습이란 명목 하에 미국 대포가 자주 포성을 울렸다. 아메리카는 눈을 부릅뜨고 분주히 몰아쳤다. 중근동 베이루트 항구를 향하여 급거 출동이다. 세아토 수역내 순찰이다. 아메리카의 유명한 히스테리 발작은 결국 아무도 놀래우지 못하고 다만 아메리카 자신을 여위게 했을 뿐이였다.

이같이 하여 동남 아세아 지역을 《공산 대군의 침습》이 휩쓴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 대군의 침습이 휩쓸었다.

문제는 명백하다. 세아토는 바로 미국의 허수아비다. 펜타곤 장관들의 노리개다.

빈사 상태에 빠진 미국의 허수아비 세아토, 캄풀 주사도 미국 자신이 실시해야 할 일이였다.

숨지기 시작한 세아토에 대한 캄풀 주사로서 워싱톤이 고안해 낸 것이 바로 《동북 태평양 동맹》 조직 시도였는바, 드디어 느고·딘·디엠, 리 승만, 장 개석의 출연이였다.

이제 와서 대아메리카가 느. 리. 장의 신세를 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느고·딘·디엠, 리 승만, 장 개석 이렇게 이름만 렬거하는 것으로서 일장 희극이 구성되거늘!

느, 리, 장 동맹, 워싱톤의 지혜 급기야 여기까지 이르다.

그러나 아무리 렴치 모르는 산파일지라도 참아 이 기형아는 우금까지 세계 면전에서 출생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래 하도 급박해진 세아토의 운명이라 덜레스 자신이 부랴부랴 출연으로 최근의 세아토 리사회의 소집이였다.

회의 과정은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캄풀 주사 실시의 슬픈 장면을 묘사해서 무엇하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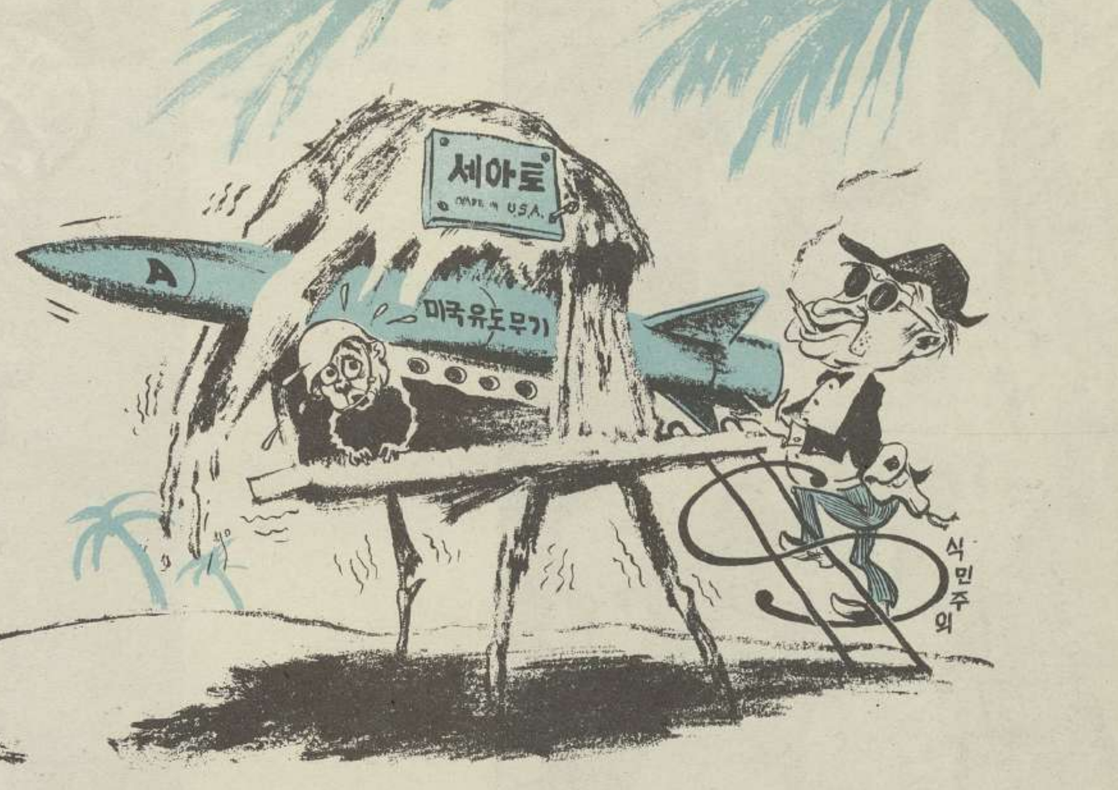
이제는 정말 세아토의 참담한 력사에 종말이 가까왔구나.

오호라, 벌써 장송곡이 울린다. 참담한 세아토 력사의 마지막장을 넘구는 장송곡이 울린다.

출생시부터 참담했던 너 아세아의 기형아 세아토여! 너 고이 누어 있을 매장지는 방코크런가 워싱톤이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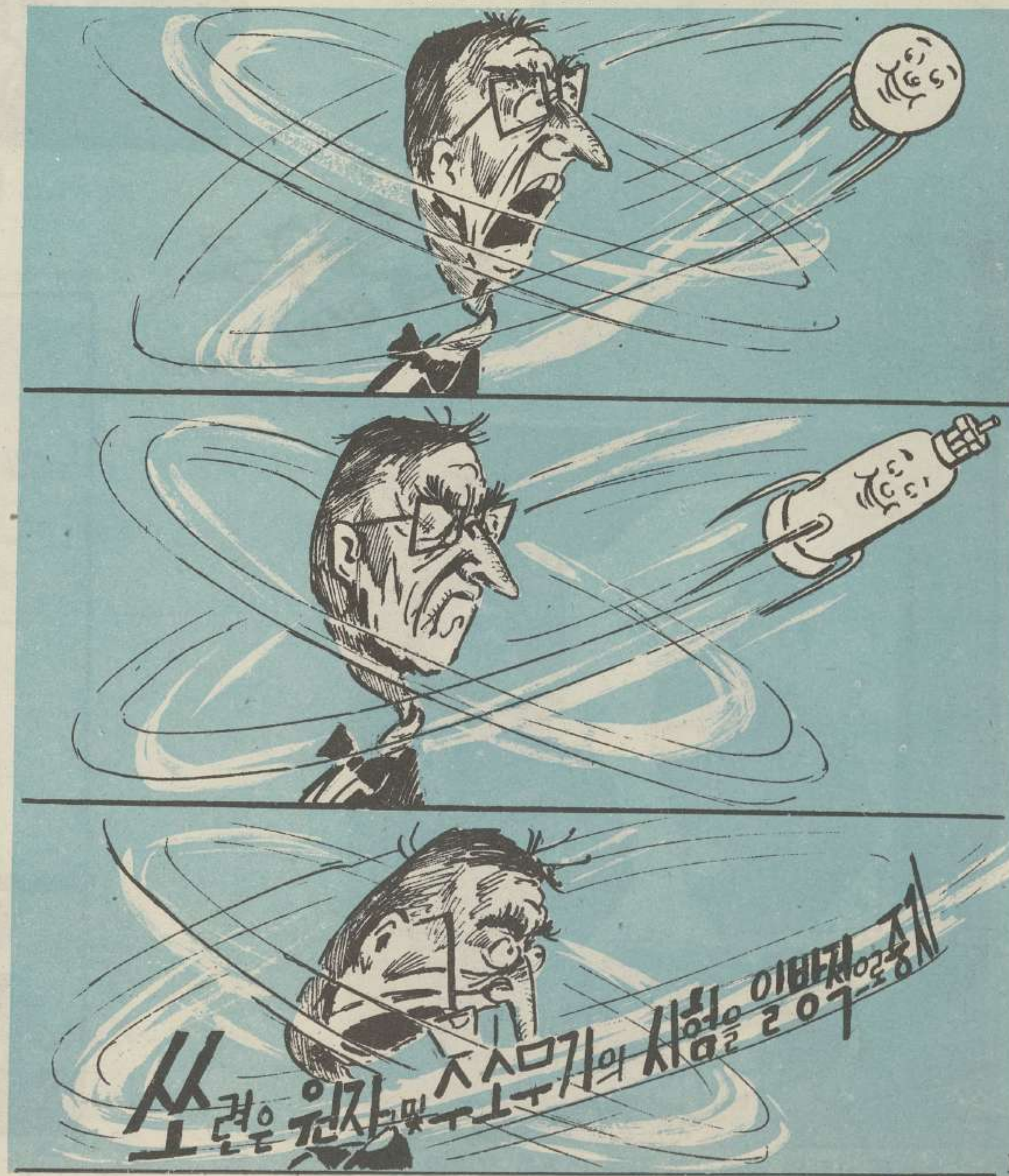
위험 천만한 음모

미제는 "동남 아세아 조약 기구" (세 아 토)에 참가하고 있는 아세아 국가 령토에 핵 및 로케트 무기를 배치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백 인균 그림

거듭되는 타격



허 능백 그림

쏘련 "끄로꼬질" 1958. 8호에서 전재
화가 에. 베제루니꼬브 그림

남조선에서의 징집령장 교부

중국 "만화" 1958. 108호에서 전재
화가 미 곡 그림

탐탁치 못한 발판

화가 필 극판 그림

—저 사람의 감독하에 자유 선거를 해야만
나는 남조선에서 철퇴하겠다

화가 강 유생 그림

궁경에 빠졌다
멀레스—우리는 가지 않을테니 두고 보아라

탐조등

△ 좋은 약

나는 지금 ×× 농업 협동 조합에 ...

△ 바쁜 사람

황주군 어느 직장에 가 있는 리 동무는 3월 중순에 휴가를 맡고 고향인 천주리에 왔다. 그는 오는 길로 자기 옛 동무들을 만나려고 락원 농업 협동 조합에 찾아 갔다. 그래서 옛 친우 김 동무를 만났다.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출장을 왔나?》

《휴가를 왔네, 그 동안 잘 있었나?》

《그럼 별고 없었지.》

《손 병인은 어디서 일하나?》

《그 사람은 지금 바빠서 못 만날거야.》

△ 덮어 놓고 열닷량

1 작업반의 한 녀성 조합원이 관리 위원장을 찾아 왔다.

《관리 위원장님 저를 딴 작업반으로 옮겨 주세요. 1 작업반에선 일 못하겠어요.》

《왜 그러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소?》

《글쎄 관리 위원장님 거기서 어떻게 일하겠는가 보세요. 우리 작업반장 로력 평가는 덮어 놓고 열 닷량이지요. 그 사람은 로력 점수 매기는 것이 시끄러운지 ... 하군 하거든요.

... 많은 사람들이 일한 것을 점 ...하고 누가 물으면 〈그러게 다 ... 그렇지만 안은 무슨 안이에 ...한 사람도, 한 점, 조금한 사 ...서 우리 작업반 최 령감이란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눈치를 ...만 부지런히 일하지요. 그래 ...를 매길 때 그 령감도 일 잘 ... 또 송 령감은 요즘 늘 우리 ...서는 남이 일할 때 자주 쉬 ...는데도 작업반장은 대엿새 ...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니 1 작업반에서는 일할 재

...된 욕

...은 달구지를 몰고 간다. 거기 ...조합원이 따라 가며 이야기를

...니 모든게 달라졌어》

...개인농을 할 때 보다는 우리 ...가까와졌으니까.》

...지 못한 사람이 더러 있거 ...

...어서도 그전처럼 그대로 있 ...가!》

...리네.》

... 대 보게.》

...내가 모르는게 아니라…》

... 아니네.》

...야, 피집어서.》

...면 자네만 해도 그렇지 않 ...네 공동 재산인 국가 산림 ...지만 조합에 들어서도 저렇 ...발이 솟아 지는데도 그대로 ...직 달라지지 못한 셈이 아

리 운 봉

활살 4월호 (1958년) 부록

송 용남 그림

—우리도 사회주의 건설에로!

백 인균 그림

자연 재해는 옛'이야기

오늘은 푸른 락원

조림의 해충들

△ 심을 때

식수하러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괭이와 삽을 가지고 나왔지만 철민이만은 호미를 들고 나왔다.

반장이 묘목을 나누어 주었다. 철민은 산에 올라갈 때 무거울 것을 생각하여 묘목 뿌리에 묻은 흙들을 말끔히 털어 버렸다. 그래서 짐은 가벼워졌지만 산으로 가는 동안에 묘목 뿌리는 고실고실 말라 버렸다.

다른 사람들은 심은 나무들이 모두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괭이와 삽으로 풀뿌리와 잡목 뿌리를 끊고 깊숙이 판 다음, 묘목 뿌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세우고 부드럽고 젖은 흙으로 묻고는 바람이 들이가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꽁꽁 다지노라고 땀을 흘렸지만 철민은 호미로 풀뿌리 짬을 뚫고 우의 마른 흙을 헤치고는 묘목 뿌리를 되는대로 구부려 묻군 하기 때문에 조금도 힘들지가 않았다.

그러나 식수를 끝마치고 산마루에 서서 자기들이 심은 나무를 바라보며 이 나무들이 오래지 않아 자라 여기에 울창한 산림을 이룰 것이고 그래서 그것들은 1

허 능택 그림

중국 〃만화〃1958. 108호에서 전재
화가 미 곡 그림

—저 사람의 감독하…
나는 남조선에서…

공들이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다

일부 지방들에서 식수할때 묘목을 무성의하게 취급하거나 되는대로 심는 결과 심은 나무가 자라지 않게 되는 현상들이 있다

홍 종 호 그림

많은 집과 배와 건설 자재가 되리란 생각으로 모두들 마음이 유쾌했지만 칠민이만은 기쁘지 못했다.

△ 심은 다음

축산반에 있는 송 령감은 협동 조합 소들을 몰고 축사를 나섰다.

그는 좀 멀리 가면 조림을 하지 않은, 풀들이 많아 소들을 놓아 먹일 수 있는 곳이 있으나 거기에까지 가기가 싫였다. 그래서 가까운데 있는 딴 리에서 금년에 식수한 산으로 소를 몰고 갔다. 그토 조림 지대에는 소나 양을 방목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것은 물론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산림 보호원에게 그렇게 쉬 띄우진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래도 완전히 마음을 놓지 못한 송 령감은 소를 놓아 주고는 산림 보호원이 오지 않는가 줄곧 살피였다. 묘목들은 금년에 심어 아직 완전히 뿌리를 박지 못한 아기같이 연한 몸이니 밟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소들이 어이 알랴! 자유를 얻은 소들은 먹을 것을 찾아 가노라고 묘목들의 밑동을 밟아 넘어뜨렸고, 또 중동을 밟아서는 수없이 부러뜨려 놓았다. 산림 보호원이 오후에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송 령감은 양지밭 잔디 우에 누어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잠 자고 나서 소를 몰고 들어가려고 살펴 본즉 소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온 산을 뒤지며 헤메는데 바로 몇 십메터 앞에 산림 보호원이 소들을 한데 붙들어 매고 잔뜩 성이 나 소 임자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다. 그는 가슴이 덜컹하여 얼른 덤불 뒤에 몸을 숨기고 산림 보호원이 자기를 기다렸으나 내려갈 기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소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를 끌고 갈거야)

이렇게 생각한 송 령감은 덤불 속에서 나와 산림 보호원에게 변명을 해 가며 사죄를 했으나 끝내 보상금을 물고야 말았다.

△ 자래운 다음에도

박 령감은 새와 싹정나무로 땔 나무를 열아문단 해 놓았다. 그는 해 놓은 나무들을 산 아래턱까지 내려다 놓으려고 지게에 한짐 실어 놓고 나서 점심 그릇을 풀어 헤쳤다.

점심을 먹고 나니 담배 생각이 나서 그는 잎초를 한대 피워 물고 무심히 맞은편 산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 산에다 며칠 전 자기들이 식수를 했다.

멀어서 갓 심은 묘목들은 보이지 않으나 나무를 심노라고 파 헤친 자리는 여기서도 희끗희끗 하게 보인다. 지금 앉아 있는 이 소나무 밭도 자기들이 심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길이 실이 되게 자랐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느끼며 앉았는데 사르르 졸음이 와 그는 담배'불을 부벼 던지고는 앉은채로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그래 아슴프레 잠이 들었는데 얼굴이 따가워 와서 잘 수가 없었다. 〃해'볕이 되겐 내려 쪼이는군〃하며 음달로 옮겨 가려고 일어난 그는 그만 놀라 뒤로 벌렁 나가 넘어졌다. 주위가 온통 불 바다기 때문이다. 그가 채 죽이지 않은 담배' 불이 피여나 바싹 마른 솔잎에 달린 것이 바람을 받아 불'길이 일어난 것이다. 그는 옷에까지 불이 달리면서 허겁지겁 겨우 불'속은 뚫고 나왔지만 수백 사람들이 정성 들여 심어 가꿔 온 수십 정보의 산림을 눈깜박할 사이에 태워 버리고 말았다.

탐조등

△좋은 약

나는 지금 XX 농업 협동 조합에 있는 조합원입니…

△ 바쁜 사람

황주군 어느 직장에 가 있는 리 동무는 3월 중순에 휴가를 맡고 고향인 천주리에 왔다. 그는 오는 길로 자기 옛 동무들을 만나려고 락원 농업 협동 조합에 찾아 갔다. 그래서 옛 친우 김 동무를 만났다.

《어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출장을 왔나?》

《휴가를 왔네, 그 동안 잘 있었나?》

《그럼 별고 없었지.》

《손 병인은 어디서 일하나?》

《그 사람은 지금 바빠서 못 만날거야.》

△ 덮어 놓고 열닷량

1 작업반의 한 녀성 조합원이 관리 위원장을 찾아 왔다.

《관리 위원장님 저를 딴 작업반으로 옮겨 주세요. 1 작업반에선 일 못하겠어요.》

《왜 그러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소?》

《글쎄 관리 위원장님 거기서 어떻게 일하겠는가 보세요. 우리 작업반장 로력 평가는 덮어 놓고 열 닷량이지요. 그 사람은 로력 점수 매기는 것이 시끄러운지 대엿새 미루었다 한 번에 하군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일한 것을 점…하고 누가 물으면 〈그러게 다… 그렇지만 안은 무슨 안이예…한 사람도, 한 점, 조금한 사…서 우리 작업반 최 령감이란…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눈치를…만 부지런히 일하지요. 그래…를 매길 때 그 령감도 일 잘…. 또 송 령감은 요즘 늘 우리…서는 남이 일할 때 자주 쉬…는데도 작업반장은 대엿새…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니 1 작업반에서는 일할 재…

…된 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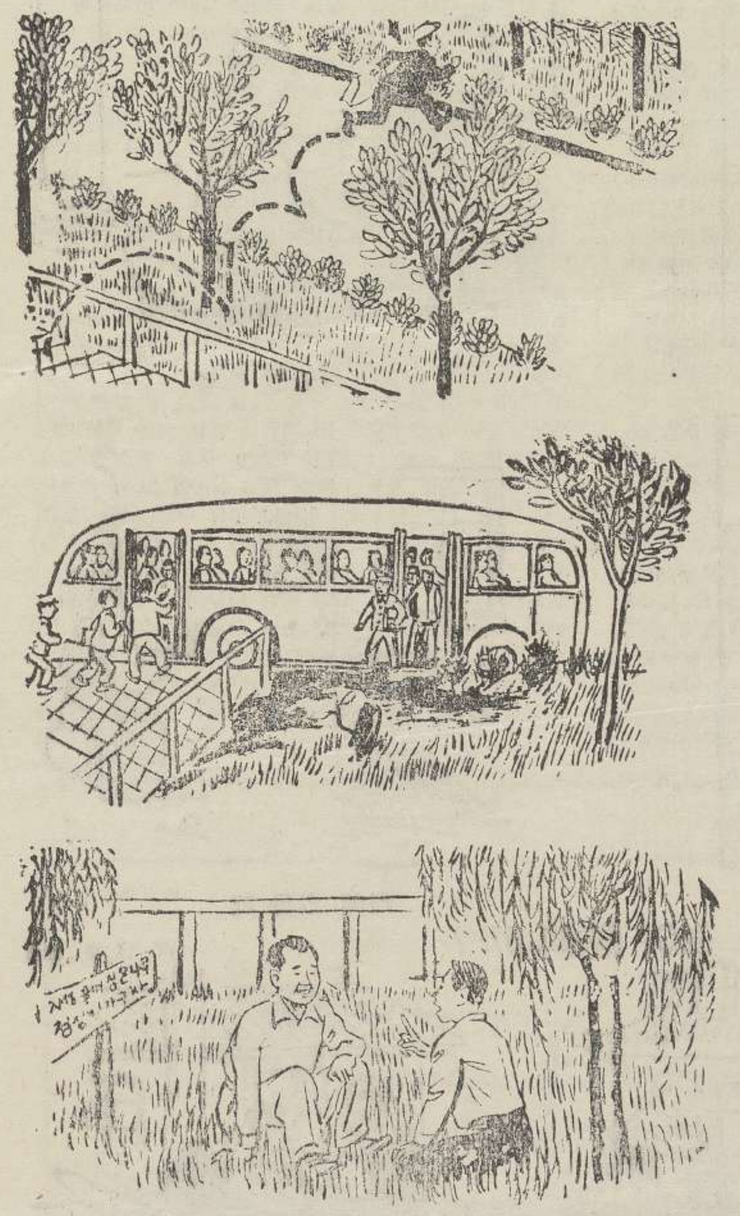
…은 달구지를 몰고 간다. 거기 …조합원이 따라 가며 이야기를

…니 모든게 달라졌어》
…개인농을 할 때 보다는 우리 …가까와졌으니까.》
…지 못한 사람이 더러 있거
…어서도 그전처럼 그대로 있…가!》
…리네.》
… 대 보게.》
…내가 모르는게 아니라…》
… 아니네.》
…야, 피집어서.》
…다면 자네만 해도 그렇지 않…하네 공동 재산인 국가 산림…았지만 조합에 들어서도 저렇…밤이 솔아 지는데도 그대로…아직 달라지지 못한 셈이 아…

리 운 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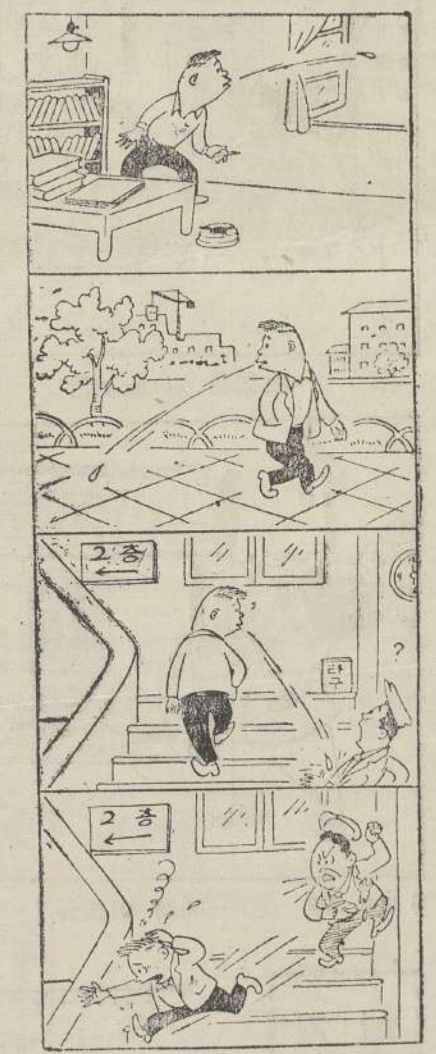
산림이 울창한 곳에는 홍수와 가물이 없다

이런 점은 고칩시다



박 승 하 그림

못된 버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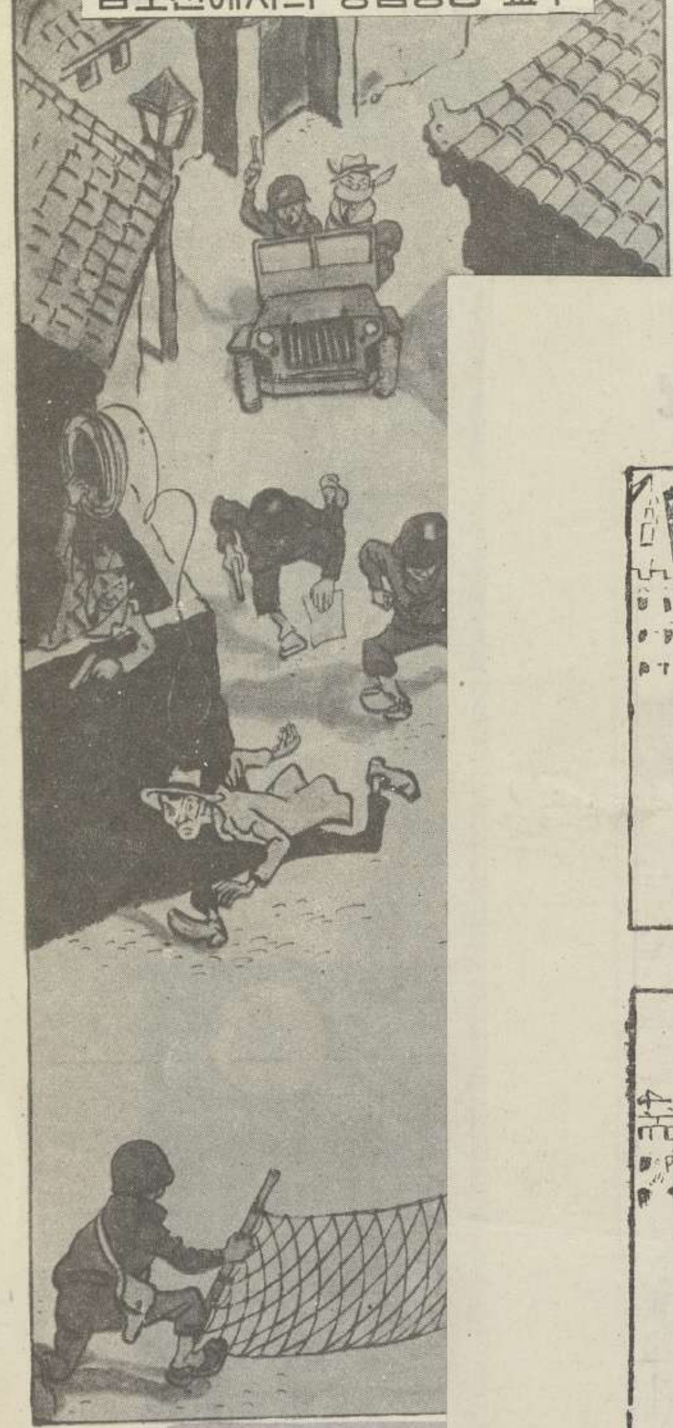
원 광 수 그림

조합림은 조합의
재산이다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많이 심고
더 잘 가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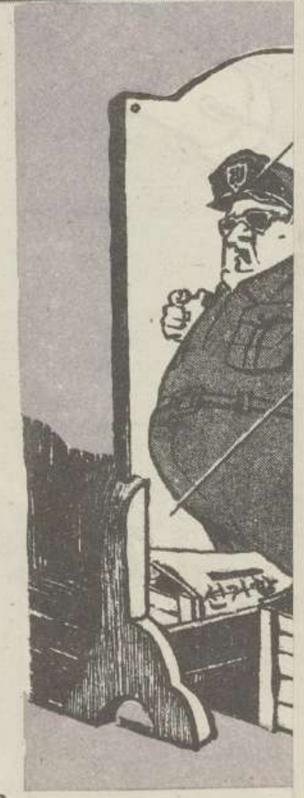
허 능택 그림

쏘련 "끄로꼬질" 1958. 8호에서 전재
화가 에. 베제루니꼬브 그림

남조선에서의 징집령장 교부



중국 "만화" 1958. 108호에서 전재
화가 미 곡 그림



—저 사람의 김 …
나는 남조선이 …

비로소 관심을 돌렸다

최 영근 그림

—그놈들 잘 노는군

외출할 때와

조 명식 그림 —에끼 이놈들!

집에 있을 때

어느 편이 좋습니까?

리 영춘 그림

지성들여 심은 나무 정성껏 가꾸자
산림이 울창해야 농토가 기름진다

탐조등

△좋은 약

나는 지금 ×× 농업 협동 조합에 있는 조합원입니다. 나는 본래 어려서부터 건강해서 병원이라군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이지요. 물론 지금도 아주 건강한 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놀라운 일이 생겼답니다. 내가 옥수수를 심는데 작업반장이 와서 하는 말이 《김 동무 빨리 오우 우리 조합에 중앙에서 의사가 왔는데 김 동무 좀 봐 달라고 합시다.》 하는 거지요. 야밤에 홍두깨라더니 정말 이거야 말로 야밤에 홍두깨지요. 나는 영문을 통 알 수 없어 의아한 표정을 하고 물었지요. 《아니 난 아무데도 아픈 데가 없는데요?!》 그래도 작업반장은 《아니야, 김 동무 분명히 병기색이 보여, 우리두 자네 병이 무슨 병인지 짐작은 할 수 있었지만 마침 중앙에 있는 전문 병원에서 나왔는 데 가 보이고 좋은 약을 좀 써 달라고하세.》 하며 다짜고짜로 관리 위원회로 끌고 가는게 아니겠습니까. 관리 위원회 사무실에는 정말 낯선 사람이 한 분 와 계십디다. 작업반장이 나를 소개하드만요.

《선생님, 이 동뭅니다. 아주 심한데 단번에 뚝 떨어져 나가게끔 잘 좀 고쳐 주십시요.》 그러자 의사가 묻드만요. 《증상이 어떻습니까?》 나는 내 자신이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터이라 벙벙해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작업반장이 대신 이야기하드만요 《증상이 이렇습니다. 이 동무에게 옥수수 종자 떨구는 일을 시키면 빨리 하노라고 어떤데는 열댓 알씩 넣는가 하면 어떤 데는 한 알도 넣고 해서 종자가 잘 붙지 않게 하고, 거름 놓는 일을 시키면 또 덤비노라고 어떤 곳엔 성근 거름을 종자 우에다 콱 덮어 놔서 잘 발아되지 못하게 하고,그래서 종자 놓은 다음에 묻는 일을 시키니 또 되는 대로 묻어서 어떤 곳은 말라서 잘 발아되지 않게 얇게 묻어 놓군 하지요.》 의사가 진단을 내리드만요. 《이 동무도 프로병 환자구만요. 물론 전체 조합원들이 이 동무의 병을 치료하기에 노력하시겠지만 우리도 가서 좋은 약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간 다음 작업반장에게 물었지요.

《어디서 왔소?》《신문사에서 오셨어.》 그제야 나는 영문을 깨닫고 얼굴을 찌프렸지요. 《내가 이제 신문에 나겠구나.》

△ 바쁜 사람

황주군 어느 직장에 가 있는 리 동무는 3월 중순에 휴가를 맡고 고향인 천주리에 왔다. 그는 오는 길로 자기 옛 동무들을 만나려고 락원 농업 협동 조합에 찾아 갔다. 그래서 옛 친우 김 동무를 만났다.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출장을 왔나?》

《휴가를 왔네, 그 동안 잘 있었나?》

《그럼 별고 없었지.》

《손 병인은 어디서 일하나?》

《그 사람은 지금 바빠서 못 만날거야.》

《그래?… 그럼 저녁에 만나지.》

《저녁에도 못 만나.》

《새벽에 가면 만날 수 있겠지?》

《그때 가도 만나기 힘들거야.》

《아니 그렇게 바쁜가?!》

《바쁠거야! 분배 받은 돈을 쓰노라고 송림으로 사리원으로 평양으로 돌아 다니노라면…》

△ 문짝

황주군 천주리 공리 농업 협동 조합 조합원 셋이 렝상모판에 덮을 문짝을 짜고 있는 곳에 한 조합원이 달구지를 끌고 왔다.

《달구질 가지고 뭘 실러 왔나?》

문짝을 짜던 조합원이 물었다.

《작업반장이 여기서 짠 문짝을 실어 오라고 해서…》

《우리가 메고 갈텐데 뭐 달구지까지 가지고 왔나?》

《달구지에다 실어 가야지, 그걸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겠나?》

문짝을 짜던 사람들은 더 말이 없었다.

《문짝이 어데 있나? 빨리 문짝을 싣고 가서 다른 걸 또 실어야겠는데…》

《바쁘면 가서 그 일부터 먼저 하게, 이건 우리들이 갈 때 메고 가니까.》

《온바에야 싣고 가지 빈달구질 끌구 갈거 있나.》

《………》

《바쁜데 좀 빨리 주게.》

한 사람이 마지 못해 대꾸했다.

《저기 있으니 그럼 싣고 가게.》

《어디?》

《저기 있지 않나?》

그는 눈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아니 고거요??》

그는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셋이 종일 짰다는 것이 도무지 두 개기때문이였다.

《그래서 문짝 내 주길 그렇게 싫어했군 그래?》

작업 정량을 정해 주지 않았다고 그들은 셋이서 하루 종일 문짝 두 개를 짰던 것이다.

△ 덮어 놓고 열닷량

1 작업반의 한 녀성 조합원이 관리 위원장을 찾아왔다.

《관리 위원장님 저를 딴 작업반으로 옮겨 주세요. 1 작업반에선 일 못하겠어요.》

《왜 그러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소?》

《글쎄 관리 위원장님 거기서 어떻게 일하겠는가 보세요. 우리 작업반장 로력 평가는 덮어 놓고 열 닷량이지요. 그 사람은 로력 점수 매기는 것이 시끄러운지 대엿새 미루었다 한 번에 하군 하거든요.

〈그렇게 며칠씩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일한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누가 물으면 〈그러게 다 안을 잡아둬요.〉 하지요. 그렇지만 안은 무슨 안이예요. 후에 가서는 일 많이 한 사람도, 한 점, 조금한 사람도 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업반 최 령감이란 꾀보는 작업반장이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눈치를 알고 작업반장이 볼 때에만 부지런히 일하지요. 그래도 작업반장은 후에 점수를 매길 때 그 령감도 일 잘한 사람과 같이 주거든요. 또 송 령감은 요즘 늘 우리보다 반 시간씩 늦게 나와서는 남이 일할 때 자주 쉬군 하면서 일도 거칠게 하는데도 작업반장은 대엿새 후에 가서는 그런건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러니 1 작업반에서는 일할 재미가 있어야지요.》

△ 된 욕

한 조합원이 거름을 실은 달구지를 몰고 간다. 거기에 밭으로 나가는 다른 조합원이 따라 가며 이야기를 건다.

《사람들이 조합에 들더니 모든게 달라졌어》

《그야 물론 달라지지, 개인농을 할 때 보다는 우리 머리도 사회주의에 좀 더 가까와졌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달라지지 못한 사람이 더러 있거든!》

《무슨 소리! 협동에 들어서도 그전처럼 그대로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임잔 모르니까 하는 소리네.》

《그럼 어디 누가 그렇나 대 보게.》

《………》

《보란 말이야! 모르긴 내가 모르는게 아니라…》

《몰라서 대답 안하는 게 아니네.》

《글쎄 알면 대보란 말이야, 꼬집어서.》

《그럼 대지, 실례를 든다면 자네만 해도 그렇지 않나. 조합에 들기 전에도 자네 공동 재산인 국가 산림에 가서 나무를 막 찍어 왔지만 조합에 들어서도 저렇게 조합소 편자가 닳아서 발이 솔아 저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니 태도에서는 아직 달라지지 못한 셈이 아닌가.》

리 운 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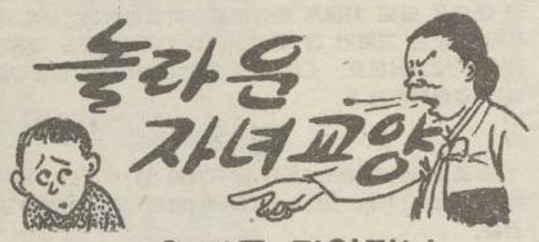
프로병에 걸렸다

허 능택 그림

조합 소는 편자를 요구한다

—이놈의 소야 남의 신발은 왜 신는거야!
—당신도 신발이 없으면 불편할줄 아오?

최 영근 그림



놀라운 자녀교양

△ 3 점을 맞았더니

《공부를 잘해야 한다. 공부 잘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단다.》

덕성이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자 어머니는 이렇게 타일렀다.

어느날 덕성이가 학교에서 돌아 오는 달음으로

《어머니! 나 3점 맞았어! 이거 봐요.》하고 숙제장을 내보였다.

어머니는 《3점? 3점이면 큰일 났구나.》

《아니야, 그것두 못 맞은 애들도 많은데…》

어머니는 덕성이를 불러 앉히고 타일렀다.

《애 그렇게 공부 잘 못하면 커서 훌륭한 사람이 못되고 트레스트나 공장에 가서 일해야 한다.》

《?…》

17,000 세대의 주택 건설과 방대한 문화 시설 건설이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덕성이네 집 동네에도 웅장한 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자 수도 건설의 영예를 지닌 청년 학생들이 동원되여 왔다. 대학 모자를 쓴 학생들이 기초 공사부터 착수했다.

하루는 덕성이가

《엄마 저 대학생들도 공부 잘 못했나부지?》

《아니지…그건…그건…》

그러자 간부학교에 다니는 아버지가 집 지으러 간다고 작업복을 입고 점심을 싸들고 근 반달이나 집지으러 다녔다.

《엄마! 아버지도 학교에서 공부 잘 못했다우?》

《아니지…그건…그건…》

《그래도 엄마가 늘 그러지 않았수? 공부 잘 못하면 트레스트나 공장에 가서 일해야 한다구—》

△하나만 안다

《아니야, 연극이 제일이야!》

《그렇지만 영화가 이거야》

춘희는 보라는 듯이 엄지 손'가락을 만길이 코밑에다 드려 댔다.

《아니야 아니야》

애들의 음성이 높아지자

《저쪽 방에 가서들 놀아라》

책을 읽고 있던 아버지는 다짜고짜로 애들을 방에서 내 몰았다. 만길이와 춘희가 아버지 방에서 쫓기여 나와 다른 방문을 열자 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어

《애들아 애기 깰라 조용해라, 밖에 나가들 놀려무나.》

어머니는 방에 애들을 들여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책보는 데 뭐?》

얼마동안은 조용하게 소근거리며 새로 온 잡지를 보고 있더니 《찌쁘야! 아니야》하며 둘이 짝짝궁이 벌어지자 어머니는 질겁을 해서 애들을 밖으로 내 보냈다. 그리고서는 이젠 안심한듯이 하던 일을 계속했다.

애들을 무턱 대고 밖으로 내 몬 뒤에는 집안이 조용하니 좋다고 마음을 놓고 계신 부모님들은 애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애들과 어떤 장난을 하면서 다니는지 그것은 물론 생각 밖에 계시다.

△ 제 잘못

《이 간나새끼, 금방 갈아 입혀 놨는데 또 이 꼴을 해 놨구나!》

어머니는 바지'가랭이에 진탕 부성이를 해 가지고 들어온 여덟살 짜리 성호를 따라 나오며 악따구니를 했다.

성호는 어머니한테 꾸중을 받고 얼마 동안 시뿌둥해 있었지만 같은 또래들이 모여 오는 바람에 다시 그들과 휩쓸려 전쟁 놀음을 시작했다.

그러다 영덕이가 성호를 깔고 넘어졌다.

《이 간나새끼 너…》

성호는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 한테서 방금 들은 말이 튀겨 나왔다.

그때 성호의 담임 선생이 지나가다가 이것을 듣고 성호에게 그런 말을 쓰면 못쓴다고 타이르고 나서 수도'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성호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성호 어머니, 성호가 말이 몹씨 어지러운 데 좀 교양을 잘 줘야겠어요.》

선생님 한테 무안을 당한 성호 어머니는 성호에게 다가가 꾸짖었다.

《너 어디서 그따위 말을 배워 가지구 선생 한테 어머닐 망신시키니?》

그러자 성호가 우는 소리로 대꾸했다.

《어머니가 늘 내게 욕하던대로 말했는 데 뭐》

김 상 애

보고만 있을 일인가

정류장에는 앞에 몰키고

최 영근 그림

뻐스에서는 뒤에 몰켰다

경험에 의하여

송 용남 그림

—어번엔 이 동무를 재여서
내 양복을 지어 주시죠

일부 양복점에서는 손님들에 대한 봉사성을 높일 대신에 옷을 작게 지어 주고는 천을 남겨 갖는 현상이 있다.

산림을 애호하자

림산 작업소에서

함남 신흥군 용보리 림산 작업소에서는 목탄을 굽는다. 이 작업소에서 목탄 생산 계획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수'자는 그리 많지 못했다.

그러던 이 작업소에서 이 달에 엄청나게 많은 목탄을 굽게 되였다. 그 방법은 이러하였다. 목탄 가마 주위에 방화선을 치지 않고, 둘째로 방화 도구를 갖추지 않고 감시를 하지 않았더니 목탄 가마에서 난 불이 산림에 달려서 많은 나무들이 탔기 때문에 저절로 《목탄》이 구워졌던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평시보다 몇 갑절이나 많은 《목탄》을 구웠지만 숯을 구으면 안될 나무를 허다히 없앴고 또 이렇게 구운 《목탄》은 목탄으로도 쓸 수 없지 않은가?!

이깔나무 밭에서

김 근수는 나이는 젊지만 일하기는 싫어해서 언제나 힘 안들이고 일할 구멍만 찾는다. 그래서 땔 나무도 좀 멀리 가서 잡목을 해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깔나무 밭에 가서 이깔나무 가지를 땄다.

물론 이깔나무 가지를 적당한 높이로 따 주는 것은 나무의 성장에 좋기 때문에 부러 품을 들여 따 주기도 한다.

그러나 근수는 나무가 죽거나 성장에 해롭거나를 조금도 아랑곳 안하고 장대기에다 낫을 매서는 가지를 우두머리 있는데까지 올려 땄다.

그는 그것도 성차지 않아 지금 한창 자라는 두어길씩 되는 이깔나무를 찍어서는 낫으로 중동을 툭 쳐서 보이지 않게 나무'단 속에 박아 넣군 했다.

그는 오늘도 두 길이나 되는 락엽송을 찍어 낫으로 중동을 툭 치는데 누가 뒤에서 어깨를 탁 움켜 잡는다. 산림 보호원이다.

《락엽송 찍는 놈을 오늘이야 잡았구나, 가자!!》

협동 조합에서

은천군 인흥 농업 협동 조합에 있는 김 동무는 며칠 동안 군에 강습을 갔다 돌아 오는 길에 관리 위원회 사무실에 들렸다.

《관리 위원장 동무 계시나?》그는 관리 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일하는 조합원에게 물었다

《지금 안 계셔.》

《어디 갔나?》

《병원엘 갔네》

《어디 아파서?》

《못 먹을 걸 먹었다가 체했다나.》

《무얼 먹었기에?》

《그 전에 저쪽 리에서들 동원돼서 식수한 산림이 있지 않나?》

《그래.》

《우리 관리 위원장이 랭상모 문짝 재료를 얻는다는 구실로 그 산림에서 나무를 수만본이나 찍어서 그것도 자기 조합에서도 쓰지 않고 안악군 협동 조합들에 팔아 먹은게 그만 체했다네.》

《그래? 정말 못 먹을 걸 먹었군 그래. 그런 걸 먹고서야 순순히 소화될 리 있나.》

리 운 봉

바꿔서 생각해 보면

황해남도 일부 지방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산림 보호에 대한 법적 요구를 무시하고 이러 저러한 구실 밑에 도벌 행위를 하고 있다.

—아이야야 머리털은 왜 뽑나
—저 산 모양처럼 만들련다

송 용남 그림

누구의 탓인가?

1. 사업이 바빠서
2. 계산이 바빠서
3. 교제에 바빠서
4. 결파에……

원 광수 그림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활 살 사 인쇄 1958. 5. 10 7—74012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58. 5. 15 값(50원)

철면피 (덜레스 상)

УЛ.ЧАЙКОВСКОГО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ВУ
[illegible] 1 12 Р8074

박 승히 그림